



4면

"배운 것 제대로 실천할 것"

2023년 2월 20일 월요일 (음 2월 1일) 제320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도-인니 서부스마트라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

문화관광·농어업·산업·인적교류 등 교류의향서 체결 한-인니 수교 50주년, 인태전략 발맞춰 지역 외교 추진

전북도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외교 정책 하나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로 꼽히는 인도네시아와의 국제 교류를 새롭게 시작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17일 인도네시아 서부스마트라주에서 마히엘리 안사물라 서부스마트라주지사과 교류협력에 대한 의향서를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양 지역간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국가간 수교 50주년이 되며 인태 전략 및 한-아세안 연대구상 추진을 위한 핵심 협력국가이자 전북도에서도 중장기 교류확대 대상국 중 하나다.

이번에 교류의향서를 체결한 서부스마트라주는 인도네시아에서도 문화적 자긍심이 높은 마낭카바우 원주민 문화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지하자원과 함께 CNN이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꼽은 '렌당(Rendang)'이란 전통음식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음식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전북도와 서부스마트라주는 이번 협약을 통해 관광문화, 농어업, 산업, 인적교류 등 분야 교류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특히 한류가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도네시아인들의 특성을 고려해 한글학당을 운영하는 공공 외교를 통해 우리 문화를 현지에 알리고 지역민간 상호 이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의 공통관심사인 농어업 분야에 있어, 기관, 학교 기업 간 세미나 및 전시회, 상호 박람회 참가 무역 사절단 파견 등 전반적 교류를 추진하기로 하고, 지역민간 문화 스포츠 예술

교류를 통한 관광분야 협력을 발전해 나가기로 했다.

교류의향서 체결식은 서부스마트라주에 위치한 옛 파가루왕 궁에서 이루어졌으며, 체결식에 앞서 열린 양 지역 전통공연은 현지 지역민도 함께 참여해 양 지역간 교류를 축하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지역 최대의 한류 열풍 거점이자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인 인태전략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떠오르고 있다"며, "서부스마트라주는 인도네시아에서도 농업, 식문화, 관광 등 우리 도와 공통점이 많은 곳이어서 전라북도와 서부스마트라주 교류가 다양한 분야에 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히엘리 안사물라 주지사는 이번 협약 체결에 대해 "한류문화의 중심지인 전라북도와 우호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인도네시아가 갖고 있는 다양한 문화에 전북문화의 색이 입혀져 더 다채로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화답했다. /김재훈 기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외교사절단이 지난 17일 대한민국 외교정책의 하나인 '인도-태평양전략' 핵심국가로 꼽히는 인도네시아와 국제교류를 새롭게 시작한 가운데 서부스마트라주 옛 파가루왕 궁에서 마히엘리 안사물라 서부스마트라주지사과 관광문화, 농어업, 산업, 인적교류 등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하고 있다. (사진=전북도 외교사절단 제공)

고창,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유치 확정

국비 180억원 투입 성내면 일원에서 조성 예정 드론 시험·인증공간 구성, 드론 전반 인프라 구축 드론 생산제작자 입주 통해 지역산업 발전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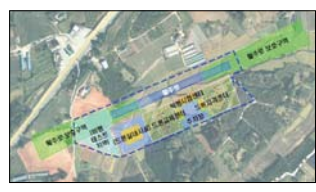
고창군이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유치에 성공했다. 특히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미래먹거리 창출에 심덕섭 고창군수와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의 완벽한 공조가 빛났다는 평가다.

지난 17일 군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가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설립 예정지로 고창군 성내면 일원을 최종 결정했다.

센터는 국토교통부가 2025년까지 국비 180억원을 투자해 부지를 제외한 모든 시설 및 장비 일체를 조성한다. 고창군은 부지제공과 진입로 개설, 도로·전기·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을 맡게 된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되는 방식으로, 상주 운영인원은 20여명 내외이며, 연간 교육생과 자격시험생은 300여명을 예상하고 있다.

이번 드론통합지원센터 유치 성공으로 고창군은 호남권 드론산업 거점으로 발돋움한다.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후보지.

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은 미래 첨단산업인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유치가 공을 들여왔다. 윤준병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부지 선정을 위한 연구 용역비가 국회에서 확보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심덕섭 군수는 "드론센터 유치를 시작으로 끝까지 주도적으로 앞장서준 윤준병 국회의원에게 감사드린다"며 "4차 산업의 핵심사업인 드론 산업이 고창에서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고창군이 중심 거점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심 군수는 "다양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고창군은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 육성하고 균형발전을 선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덧붙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세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1억3500만원 이하

전북도는 빈곤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을 올해부터 더욱 완화한다고 밝혔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은 정부의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빈곤층을 지원하고자 도입한 제도다. 지난 2019년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로 시작해 매해 점차 지원 기준을 완화했으며, 올해부터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주거재산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재산 기준을 9,500만원 이하에서 1억 3,500만원 이하(금융재산 3,4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단 부양의무자 소득이 고소득(연 1억 이상)이 아니어야 한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만 원에서 최대 28만,000원을 지원한다. 출산시 해산급여 70만원, 사망시 장제급여 80만원도 지급한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고,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병행 신청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최근 급격한 경제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생활이 어려운 비수급 빈곤층의 기본생활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문 농어업인 요람 한농대 학위수여식

한국농수산대학은 지난 17일 전주 시 교내 대강당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와 졸업생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4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전문학사 446명, 학사 115명 등 총 561명의 졸업생이 학위를 받았다. 지난 3년 간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운 학습 여건 속에서도 학사일정을 마쳤다.

한농대는 1997년 개교 이래 누적 688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정현출 한농대 총장은 "정부와 지자체, 한농대 동문회 등과 적극 협력해 졸업생들이 농어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어촌 사회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상담과 컨설팅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임실군의의회

군민의 소중한 뜻을 높이 받들겠습니다.

믿음과 희망을 주는
임실군의의회



열린의정!
으뜸의회!





임실치즈테마파크